

03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글 · 정재희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19

## 1. 배경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급속한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과 제도로 인해 안전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었으며,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등 세계가 경악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운동의 본격적인 태동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1995년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 2.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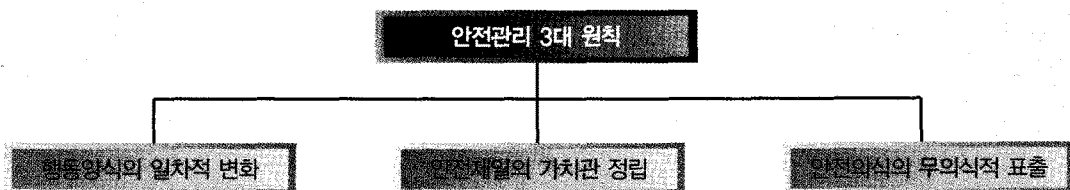
실상 1990년대 이전에는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 등은 있었지만 안전문화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정부 정책으로 안전은 차후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들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를 겪은 후부터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6년 이후에는 수동적인 대응자세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안전향상을 위한 국민의식 강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 이후에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의 실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80년대 이전 : 안전문화 부재 단계
- ② 1990년대 초반 : 안전문화 인식 단계
- ③ 1996년 이후 : 안전문화 구축 단계
- ④ 1998년 이후 : 안전문화 활성화 단계

## 3. 기본목표

안전문화운동의 기본목표는 행동양식의 일치적 변화, 안전제일의 가치관 정립, 안전의식의 무의식적 표출이라는 안전문화운동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림 1〉 안전문화운동의 3대 원칙

또한 사회 각 분야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안전문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기업 및 직장 등 기존의 조직사회에 안전문화를 접목시키고,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의식을 체질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4. 조직

정부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조직은 1995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체계화된다. 당시 안전문화운동을 위해 여러 부처의 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이를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채택키로 하고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공단 내에 안전문화추진본부가 설치 운영되었다. 2004년 정부기구인 소방방재청이 개칭하면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의 중심체로 역할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건국 이후 최초로 안전명칭을 포함하는 행정안전부가 신설되고 소방방재청의 안전문화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등 행정안전부와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가 공동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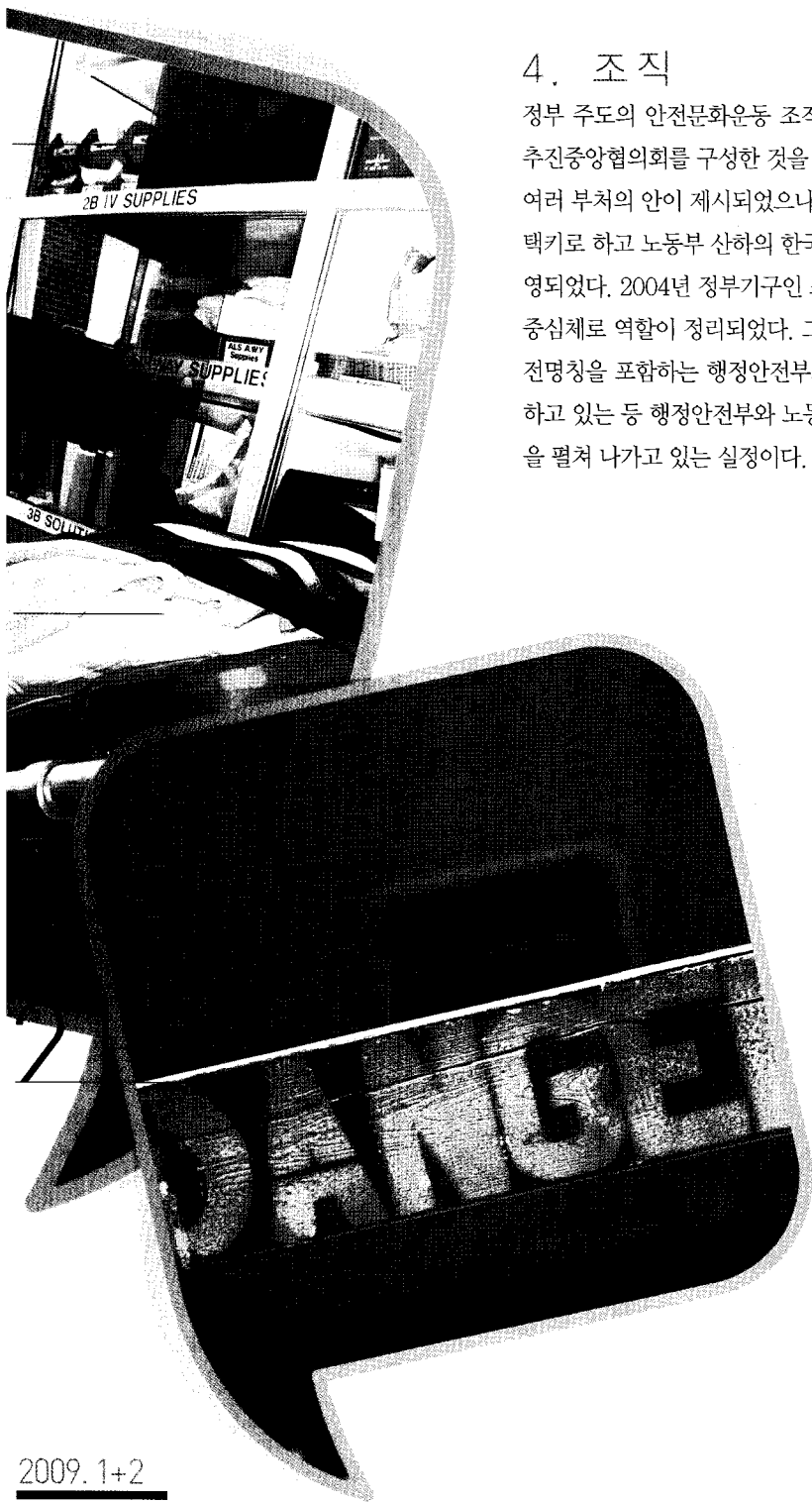
#### 5. 추진사례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 사례로는 안전점검의 날을 꼽을 수 있다.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은 1996년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법적인 행사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정기적으로 민·관·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안전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안전문화운동의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안전 : 지방자치단체
- 가정안전 :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협조)
- 학교안전 : 교육청(각 학교)
- 산업안전 : 산업안전공단
- 교통안전 : 지방경찰청(시민단체 협조)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은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형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전국 23개 단체







## 7. 활성화 방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경각심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캠페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파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고예방 내용이 참석한 사람들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가 이웃, 친구, 가족에게 재교육할 수 있는 파급성을 내포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 눈과 귀로 표현되는 언론·방송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기획시리즈로 안전문화 선진화방안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교훈을 일깨움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의 안전문화의식은 사실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경제우선논리에 길들여진 탓이며 고도성장의 틈에서 채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지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국민안전의식 고양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보건법에 의해 안전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1938년부터 47개 주에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이 독립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학교안전교육 및 사회안전교육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안전하게 자라는 법을 교육받은 아이는 안전을 실행으로 옮기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청소년은 안전을 생활화하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사회에서 낙오되는 일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호소해야 한다. 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본적인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근거의 법제화 및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안전문화의식의 저변확대와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의식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

### [참고문헌]

1.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kosha.net>
2. 강원안전문화365 홈페이지 <http://www.safety.go.kr/>
3. 충남 안전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afety.cnt119.go.kr/>
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http://www.suseong.daegu.kr/index.html>
6. 전라남도 장성군 홈페이지 <http://jangseong.go.kr/>
7. 안전문화운동, 행정자치부/안전시민연대 (2002)
8. 소방방재청 안전칼럼 "국가방재 안전교육훈련 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
9. 안전보건정보서비스 "안전문화의 정착"
10. 정재희 "안전사회 이렇게 만들자"